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2차 강연

한국교회여 새롭게 상상하라!

- 교회적 생태의 다양성을 향하여.

2019년 10월 17일(목) 오전 11시

새문안교회 911호 듀나미스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회

NCCK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두 번째 강연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1차 강연회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 속 교회의 존재의미(약자와의 연대)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제 NCCK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1차 강연회에 이어 사회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변화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다양성 확보와 함께 연대의 존재방식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경쟁을 존재 방식으로 가지고 있기에 그 지속가능성을 의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쟁하는 존재의미를 극복하고 연대하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교회적 상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영국교회의 경험을 배우는 것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 속 교회의 새로운 존재 방식 탐구함으로써 한국교회 내에 Ecumenical Partnership에 근거한 연대적 교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17일

NCCK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일 정

11:00 ~ 12:00 주제 강연 - 한국일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에큐메니칼 운동과 지역교회 ; 선교적 관점에서”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사례 연구 I - 하태욱 교수(건신대학원대학교)

“마을을 지향하는 교회, 마을이 되는 교회 -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키워드로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살핀다”

14:00 ~ 15:00 사례 연구 II - 오동균 사제(대한성공회 대전교구 교육원장)

“선교형 교회란 무엇인가? - Fresh Expression의 실제”

에큐메니칼 운동과 지역 교회: 선교적 교회 운동과 지역 에큐메니즘

한국일(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선교학)

서론: 기존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

근대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이 선교현장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세계선교대회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모여 경쟁적인 선교와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선교회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세계복음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서구교회들은 이러한 에큐메니칼 정신과 원리가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에서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초기부터 세계교회와 함께 하는 에큐메니칼 연대적 관계가 있었다. 선교 역시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상황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역교회들과 멀어지게 된 것은 한국사회가 처한 독특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70년대부터 한국사회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민주주의 실현, 정의와 평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운동으로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런 이유로 보수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에큐메니칼 운동은 반선교적이며 정치적 운동으로 비판한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정신은 서구교회에서는 신학자나 운동가들의 특정 집단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지역교회들에게까지 스며들어 있으며 세계교회의 관심사는 지역교회 관심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신생교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은 주로 전문적 기구 중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들면 한국교회협의회(KNCC)나 다양한 에큐메니칼 기구를 중심으로 주로 정치 사회적 의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지역교회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런 현상이나 주제와 관련하여 에큐메니칼 운동과 지역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전개된 에큐메니칼 선교운동의 역사적 변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기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선교현장에서 시작하여 선교단체와 교회들의 연합운동으로 진행하다가, 1925년 “생활과 사역”(life & work)이 조직되어 교회의 사회적 실천의 아젠다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1927년 신학과 교리와 직제를 논의하는 “신앙과 직제”(faith & Oder)기구가 형성되어 에큐메니칼 운동은 선교, 봉사, 신학의 다양한 분야로 연구와 실천이 확장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48년 생활과 봉사, 신앙과

직제가 세계교회협의회(WCC)이름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협의체 성격의 기구로 통합되었고, 선교를 담당하는 국제선교협의회(IMC)만 별도로 활동하였다. 여기에는 교회(파) 뿐만 아니라 19세기부터 세계선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던 다양한 선교회, 선교단체들이 있었고, 이들은 서구교회들이 참여하지 않은 교회 밖의 세계(해외)선교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선교의 전문성과 집중적 사역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계교회협의회 자체 안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대화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오랫동안 서구교회에서 선교와 교회가 분리되어 온 현상이 양 기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선교와 교회가 서로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어 함께하는 것이 교회와 선교의 본질에 더 합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선교와 통합의 요구는 선교현장인 신생교회에서도 제기되었다. 선교회 중심으로 시작된 선교활동으로 선교현장에 신생교회들이 형성되고 정착되면서 선교는 서구교회의 체제와 같이 밖의 선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선교와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그들(신생교회)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해오던 신생교회들도 선교와 교회가 통합되는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교와 통합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해외선교중심으로 활동해 오던 선교회와 선교단체들은 국제선교협의회(IMC)가 세계교회협의회(WCC)안으로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였고, 실제로 회원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통합이 실현되면서 세계교회협의회 안에서 에큐메니칼 선교(CWME)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선교가 교회와 통합된 이후에 원래 희망하였던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고, 기구화된 전통적 교회를 선교를 통해서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바르게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선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통적 해외선교가 약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선교가 교회기구와 통합되면서 선교의 개념이 본래 의도대로 교회를 활성화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선교와 교회의 통합 이후에 중요한 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동안 필자가 연구하고 이해해온 바에 의하면, 국제선교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가 통합된 이후에 선교기구가 교회기구 안의 부서(CWME)가 되면서 선교의 이해와 활동의 범위가 매우 확장되었다. 전통적인 선교회 중심의 선교개념, 즉 복음전도, 교회개척, 회심과 개종 등 개인중심적 선교활동들은 교회가 세계 속에서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포함하면서 점차적으로 확장되었다.(CWME선교 문서의 주제들과 내용 참고) 이런 현상은 1961년 뉴델리에서 통합한 이후에 세계상황과 교회의 급격한 세계상황과 사회적 변동에 큰 원인이 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이런 사회적 변동과 변화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면

서 교회의 사회적 역할(life & work)이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신학과 정책에 반영하였다. 특히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오면서 에큐메니칼 선교의 주제들은 세계교회협의회的主題들과 함께 19세기의 식민지 유산의 청산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구원론의 확장, 가난, 서구교회와 제3세계 사이에 구조적 문제, 또는 제3세계와 신생교회안에서 발생하는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회적 주제들을 선교의 주제로 수용하고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60년대 이후 기독교국가(Christendom)의 특성인 관리와 유지형의 자기중심성과 내향성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일어나며, 다른 한편 전 세계적 이슈를 다루기 하여 편협한 교회론을 넘어서 “세계를 위한 교회”, “흠어지는 교회” 개념이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를 담아내는 교회론으로 정착되었다. 이런 확장된 교회론은 전통적 서구교회를 탈중심화하고, 세계를 향하여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신생교회들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신학적, 교회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더 숙고해야 할 주제가 있다. 그것은 60년대 이후에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활동을 담당한 “흠어지는 교회” 개념이 교회론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레슬리 뉴비긴) 호켄다이크에 의하여 강하게 주장되었던 흠어지는 교회 개념은 공교회 체제위에서 있고, 또 전통적으로 교구중심의 유지와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서구교회를 선교운동으로 활성화하는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성장하는 신생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신생교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 그것은 오랜 시간과 공교회 전통으로 공고한 체제를 가진 서구교회와 다르게 신생교회는 불모의 현장에서 출발하여, 모이고, 세워지고, 파송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구교회는 공교회 개념으로서 교회를 말하지만, 신생교회는 지역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구교회와 다를 체계와 체질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신생교회의 과제는 어떻게 비기독교사회의 불모지역에서 교회를 모이고, 세우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지역교회 차원에서 함께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선교와 교회가 통합된 이후에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한국교회 역시 이 논의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필자의 생각으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역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지역교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연합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이 지역교회의 선교적 활동으로 참여하며, 세계교회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운동과 세계운동이 서로 연결되는 “글로벌(glocal) 선교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시대에 필요한 선교 과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정신과 원리가 지역교회들과 연합과협력관계를 갖지 못하고 기구중심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60대 이후 한국사회가 급속

한 산업발전과 군사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시대에 한국사회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혼란을 겪으면서 에큐메니칼 정신 중에 사회참여 부분이 극단적으로 강조되었고 반대로 지역교회들은 교회성장운동에 몰입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의 관계가 분리되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으며, 경제성장의 불균형이 초래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업선교활동과 참여로 인하여 보수적 성향의 한국교회에 급진적인 정치집단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반면에 대부분의 지역교회는 당시의 교회성장운동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에는 무관심한 개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화되었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성장의 분리현상은 한국교회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오늘날 교회는 안팎의 문제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교회는 우리사회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민주화를 실현하였으나 경제성장이 초래한 물신주의와 세속주의 확산으로 인하여 신앙의 필요성이 약화되었고,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 안 갈등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사회적 공신력이 심하게 약화된 상태이다. 70-80년대 한국교회성장을 견인하였던 교회성장 이론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여 출구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다.

전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을 통해 대 사회적 메시지와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교파주의적 성격을 가진 한국교회는 사회를 향한 통일된 입장이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국기독교협의회(NCCK)와 한기총이 대표적 기관이었다. 그러나 한기총은 구성원들의 내부적 분란과 지도자들의 도덕적 부패로 인하여 더 이상 대표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갖지 못한 상태이며, 한국교회협의회 역시 70년대 사회와 다른 양상과 요구를 가진 오늘의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NCCK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대하는 신학적 깊이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교회에 대중적 호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연합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NCCK는 소수의 교회 대표들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지역의 교회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적극적 지지와 후원을 받는 교회연합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지역사회를 기본단위로 하고 그 지역에 속한 교회들의 연합운동을 이끌어내는 지역 에큐메니칼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1. 지역 에큐메니칼 운동의 활성화

앞으로의 선교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방향은 그 활동의 기본 범주를 지역사회로

하고,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목표로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전개하는 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세계교회협의의 선교 패러다임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기존의 교회중심의 선교의 지평을 확장시켰지만 동시에 교회론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의 WCC가 제시하는 에큐메니칼 활동들이 지역교회 차원과는 무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역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 밖의 연합기관의 활동이나 운동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지역교회중심으로 교회의 성격이 형성된 한국교회 상황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는 교회론이 강화되고 지역교회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방향이 필요했다. 2013년 부산총회에서 승인된 세계교회협의회 선교문서(“함께 생명을 향하여”)에서는 선교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지역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국과 같이 교파주의 선교로 출발하고 더욱이 개교회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에큐메니즘이 지역교회들과 무관한 거대담론으로만 제시된다면 한국에서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점점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교회가 약화되는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의 풍부한 신학과 활동내용들은 지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이 소수의 전문가의 신학이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교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실천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교회의 선교적 의미와 역할을 에큐메니칼 협력선교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해서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적 토대가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현재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 패러다임이 교단적 차원이나 혹은 지역교회의 대중적 호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교회 차원에서 연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운동이 지역교회의 선교운동에 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교회에는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발전시켜 온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 상황적 특성의 요청과 필요에 맞추어 적용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지역교회의 목회에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에 대한 바른 공부는 지역교회를 세계교회적 차원으로 눈을 열어주며, 또한 세계교회의 의제들을 지역교회를 통해 구체화 하기 때문에 세계교회와 지역교회를 연결해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특별히 신생교회 현장에서는 지역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현실에서는 힘이 없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신생교회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가 지역교회를 세워주고 활성화 하며 세계교회와 선교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역 에큐메니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금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뛰어난 이론가 중 한 사람인 콘라드 라이저(Konrad Raiser)는 “전환기의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책에서 탈식민지 시대에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이 갖춰야 할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하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 교회에 대한 주제도 포함되었는데 내용으로는 교회의 연합이 주된 관심사였다.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우리 시대가 직면한 세계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그의 주 관심사로 제시된다. 공교회 차원에서의 연합운동과 사회적 실천, 이것이 전형적인 에큐메니칼 신학이 교회에 관하여 논의해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공교회 뿐 아니라 지역교회들이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서구교회를 전제로 한다. 지역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에큐메니칼 운동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신생교회들의 문제는 반영되지 못하거나 신학적, 선교학적으로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하였다.

21세기에는 이전과 다른 상황에 적합한 탈기구적이며 탈전문가적으로 보편성과 대중성을 지녀 모든 지역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에큐메니칼 운동의 패러다임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역 차원에서 에큐메니즘을 한국교회 안에 정착하고 확산하는 지역 에큐메니즘 운동이다. 지역 에큐메니즘을 실천하는 활동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교회 연합 운동이 있다. 첫째 지역 에큐메니즘을 실현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지역 NCC가 있다. 전국에 9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지역의 교회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정신이 지향하는 정의, 평화, 생명, 인권과 같은 공통적 가치들을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이 안고 있는 특성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교회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지역 NCC와는 다르지만 각 지역별로 속한 지역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교동협의회가 있다. 이 운동 역시 지역 교회들이 지역의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협력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 NCC가 에큐메니칼 교단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지역교회들의 연합활동이라면, 교동협의회는 보수교단을 포함한 지역교회들의 협의체로 비정치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지향한다. 셋째 지역 교회들의 자발적인 연합모임을 통하여 지역 복음화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교회연합 형태가 있다. 이들은 특정한 연합 형태를 갖지 않으면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교회들이 협력하는 형태이다. 이런 유형의 지역 에큐메니즘의 유형은 주로 도시보다 농촌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볼 수 있다. 교회성장운동에 영향을 받은 도시 지역의 대부분 교회들은 개교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농어촌의 교회들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작은 교회들이 연대하며 선교적 교회와 목회를 실현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추구하는 공동의 증언과 사회적 증언은 지역교회의 선교적

연대와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관점을 갖게 한다. 공동의 증언은 국가 차원에서의 교회간 협력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교회들의 연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 작은 교회들은 개교회의 시각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보이지 않지만 연대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역사회에 문제에 공동으로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다.

예를들면, 태백의 있는 교회들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도박중독자를 위한 치유행동과 같은 문제들을 서로 연합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개교회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일이며 만일 교회들이 연합하지 않았다면 지역사회의 필요성이나 문제들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역교회들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개교회적 관심을 넘어서 연합적 시각에서 지역의 문제를 넓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교회나 한국교회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교회에 기반을 둔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를 전망할 때 에큐메니칼 신학은 앞으로 신학적으로 보수 진보의 구분을 넘어서야 하며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선교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가 함께하여 마을을 변화시키는 지역의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교회 중심의 활동은 그동안 소원했던 지역사회와 교회를 연결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지역 에큐메니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생명을 실현하는 폭 넓은 신앙과 선교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지역 에큐메니즘을 실현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은 에큐메니칼 신학과 운동이 지역교회의 선교적 운동과 결합되어 실현되는 선교운동이다. 에큐메니칼 신학과 운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지역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그 속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선교적 교회운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에큐메니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야 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역교회 뿌리내리고, 지역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의 당파성과 함께 편협한 교회론(구원의 방주, 분리된 교회론, 건물주심의 교회론 등)을 극복해야 한다.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엡1:23)이라는 바울의 교회론에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 안에 거하면서 세상 전체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하는 선교적 사명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운동과 한국의 지역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론적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우선적이다.

또한 지역교회 차원에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미 60년대 후반에 제시되었다. 오늘의 선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은 지역교회 차원에서 선교운동을 전개하는 선교적 교회운동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신학적 연구모임은 세계교회적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로잔 운동의 신학연구모임은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지역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관한 특별연구모임을 가졌다. 이 연구모임의 결과로 제시된 문서에서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선교는 특정한 교회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역적 표현이며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지역교회는 말로 복음 전도의 가장 우선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신한다. 모든 지역교회는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대리자가 된다.”

세계교회협의회도 지역교회 차원에서의 선교적 역할과 책임을 최근의 선교문서에서 강조하였다. 2013년 발표한 공식적인 선교 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에서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서 어떤 선교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오늘날 변화된 세계는 지역 회중들이 새로운 주도권을 발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97) 그것은 “지역 회중들은 선교의 전선들이며 주요 대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서들에서 오늘의 선교는 지역교회 차원에서 연합과 협력활동을 강조한다. 지역교회와 회중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중요한 자원임을 알아야 하며, 이런 점에서 “교회는 각 지역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맥락 안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99)

오늘날은 오래된 교회, 신생교회 모두 지역교회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의식을 가지고 선교적 책임을 수행하며 이런 경험들이 세계선교에까지 확장되는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한국교회에서의 지역 에큐메니즘은 세계 선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선교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오늘의 선교는 교단 대 교단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경험이 세계선교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과, 선교와 교회 뿐 아니라 선교와 지역교회의 목회활동의 만남이 세계선교의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3. 에큐메니칼 신학을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실천하는 지역교회들의 유형들

선교적 교회에 근거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역화 운동이면서 또한 교회의 건물과 울타리를 넘어 지역 전체를 목회현장으로 인식하며 접근하는 선교적 목회활동이다. 이런 지역교회 역할은 목회자의 목회관(목회신학과 철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성도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선교적 목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침체현상과 공신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극복하며 교회의 활성화를 실현할 대안적 목회방향이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대형교회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교회 희망은 제10차 총회 에큐메니칼 선교 문서(20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으로부터 선교(mission from the margin), “변방에서, 광야에서 수십년 동안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하게 한국교회를 지켜온 농어촌 교회들, 도시 주변의 교회들로부터 발견한다. 아래에서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대표적 역할들을 아래의 네 가지 특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생태계 형성, 플랫폼(마당)으로서의 교회, 지역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지역 에큐메니즘

1) 지역 생태계를 형성하는 교회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는 선교현장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선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사역을 실현하는 활동이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상호 연관된 창조 세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태학적 이야기 속에 자리한다.”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선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자라나는 생태계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죄악은 개인적 범주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 전체를 병들게 한다.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분절된 사회를 만들고 한계를 모르는 개발을 향한 욕망은 지구촌의 환경파괴로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생명의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개인이나 영혼구원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은 세계를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박성원은 “오늘의 생태 위기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변혁적 생명신학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변혁적 신학 담론과 영성을 중심으로 예배, 선교, 봉사, 기독교교육 등 기독교 증언 행위의 일체가 재편되는 새로운 변혁적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요10:10)을 누리며 사람이 살만 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신학, 교회, 선교가 요구된다.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새롭교회는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실현하는 선교적 목회를 실천하고 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지역의 주민들과 긴밀한 교제와 협력관계를 가지며 지역을 위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새롭교회는 본 교단에서 추진하는 생명망 짜기 운동을 지역교회 차원에서 생명목회로 훌륭하게 실현하고 있다. 김은혜

교수는 새롬교회를 “교회와 마을과 지역을 잇는 생태계를 만드는 선교”로 정의하고 복지, 교육, 문화를 포괄하는 그물망을 형성함으로 지역생태계를 조성하는 교회라고 평가한다. 이원돈 목사는 바람직한 목회 생태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생태학적 상호의존적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분리된 사물들의 집적으로 만들지 않고 근본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 현상들의 연결망(network)으로 만드셨다. 모든 개체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된 상태(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생물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와 목사는 교인들 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을 위한 교회, 목사가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관계와 영향력을 가진 교회,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원돈 목사의 목회철학이다. 지역 에큐메니즘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생명망 목회를 한다. 첫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지활동을 통한 복지생태계, 둘째 교회학교와 마을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를 잇는 학습 생태계, 셋째 교회의 성서교육과 함께 지역의 인문학 교육과 시민교육을 함께하는 문화생태계이다. 새롬교회는 이런 생태계에 기초하여 교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돌보는 영적 돌봄망을 실천하며 지역을 위한 사회적 중보기도와 사회적 심방을 수행한다.

새롬교회는 대형 교회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깊은 친교와 공감의 토대 위에 선교와 봉사의 공적 실천과 생명 목회, 생명선교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2) 플랫폼(마당)으로서의 교회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그에 따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고 지역을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요즘은 플랫폼을 인터넷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그 기능을 소개한다. 첫째 연결기능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점으로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며, 둘째 상호 성장하는 기능이다. 콘텐츠 공급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콘텐츠의 질이 좋아진다. 셋째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 플랫폼의 기능은 지역교회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식에서 관계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지역교회는 교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일에 자발적으로 섬김과 봉사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공교육, 농업, 마을 주민과의 화해, 소외 노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필요성에 부응하는 활동들은 다양하다.

지역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행하는 플랫폼(마당)의 역할을 세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를 향해 열려 있으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둘째 지역사회와 대화하며 소통하는 관계를 이룬다. 셋째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변화를 기대한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화해의 직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선교의 백성이 된다.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충돌 대립이 발생할 때 중재와 조정, 화해의 사신으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그것을 위해 교회는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나누고 공유하는 복음의 실천은 이러한 관계와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거된다.

근대화, 산업화와 함께 농촌마을의 붕괴를 경험한 시대에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교회가 지역의 마당이 되어 주민들과 어울리며 축제를 벌이는 보령의 시온교회가 있다. 시온교회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의 교회로서 여느 교회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실망하지 않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마당을 만들어가며 신명나는 지역교회를 이루어 간다. 시온교회는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감성을 통해 농촌에 깃들어 있는 문화를 이끌어내어 마을의 가치를 살리려는 노력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김영진 목사는 일반적으로 농촌에 문화가 사라졌다는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 김영진 목사는 “본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훌륭한 문화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농촌선교의 시작이고, 희망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회한다. 시온교회는 마을 공동체를 모을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추수감사놀이를 축제로 열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개방하고 주민들의 흥을 돋울 수 있고 잠재된 문화적 감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교인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마을 공동체가 형성된다. 처음에 교회의 이런 노력에 주민들이 낮설어했으나 점차 교회의 진정성을 느끼면서 모이기 시작했다. 교회의 창의적 발상과 마을의 주민, 지도자들이 함께하면서 지역의 축제가 만들어졌다.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봄에는 들꽃 축제를 열고 있다.

학교 살리기 운동에도 교회와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의 생명을 이어간다. 교회가 마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지면서 마을의 교회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또한 교회가 거룩하고 딱딱한 곳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온교회는 방주 안에 갇힌 교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농촌이 간직한 문화적 소양과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어주고 교회와 함께 마을 축제행사를 진행하면서 “친교와 함께하는 선교”(mission with koinonia)를 실천한다.

시온교회는 교회의 축제를 교인들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함께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 나라의 마당이 된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마당이 되어 마을 목회를 추구하는 것은 지역을 사랑하며, 지역의 주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교회에 주신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일치한다. 시온교회는 지역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지역주민과의 친교를 회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선교적 목회를 실천하고 있다.

3) 지역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교회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는 선교적 목회 또는 마을 목회는 잃어버린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우리는 과거에 모두 마을에 살고 있었다. 마을은 지역주민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공동체이며 우리가 터잡고 살아가는 가장 실질적인 삶의 현장이자 소통의 공간이다. 그런데 산업화와 급격한 도시화 과정은 전통적인 마을을 해체하였고, 같은 시대에 교회의 급성장은 지역교회의 정체성을 지역성을 상실한 개교회로 전락시켰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마을의 회복을 갈망하는 이유이다.

60년대까지 지역교회는 마을의 교회였고 성도는 지역의 주민이었다. 70년대부터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교회는 모든 관심과 역량을 교회 안으로 집중하여 교회를 규모와 숫자로 성장시켰지만 결과적으로 교회의 지역성을 상실하고 지역으로부터 고립과 단절을 초래하였다. 한 마디로 교회는 ‘지역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에 관심은 없는 교회’가 되었다. 이제 지역 교회는 지역성을 회복하고 주민들과 친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나는 한 교회에 담임목회자가 아니라 이 지역의 마을지기로 부임한다.” 이 말은 32세의 젊은 목사로 한남제일교회에 담임목회자로 부임할 때 오창우 목사가 한 말이다. 오 목사는 부임 처음부터 이미 마을 전체를 자신의 목회현장으로 인식하고, 교인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를 목회하는 선교적 목회로 출발하였다.

한남제일교회는 술집과 유흥가로 가득한 이태원 지역에 있는 교회이다. 이런 어려운

목회환경이지만 이 상황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선교사의 목회, 즉 지역주민들의 삶의 자리의 필요에 부응하는 선교적 목회로 출발하였다. 그것을 위해 일차적 과제로 지역주민과 좋은 관계형성에 노력하였다. 교회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 희망을 품었다. 오창우 목사는 초대 지역주민자치위원장이 되어 지역의 행정기관과 마을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것은 개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라 지역의 마을지기로 부임한다는 당시의 생각대로 마을지기로서 목회를 한 것이다.

교회건물도 교회나 교인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목적으로 설계하고 건축하였다. 92년 “지역사회의 접촉점으로서의 교회”란 제목으로 목회학 박사 논문을 작성하고,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관을 정립하였다.

한남제일교회의 복지활동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실행한다. 복지는 궁극적으로 사회와 정부기관이 담당하게 된다는 이해를 가지고, 사회가 하지 못하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복지활동을 지향하였다. 교회는 주민을 구청에서 실시하는 복지와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다. “연결복지” 즉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교회의 복지활동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한다. 코디네이터 활동에서 교회의 역할을 찾았다. 이런 방식으로 바이올린 교실, 방과 후 교실을 구청의 주민센터시설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교회의 복지활동은 과시용, 전시용, 교회 생색내기 활동을 지양하고, 지역의 기관이 행하는 활동에 함께하는 “참여복지”와 뒤에서 섬기는 “숨은 복지”를 지향한다.

한남제일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진정성은 교회 안에 카페를 설치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교회 바로 앞에 카페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커피집과 계약을 맺어 할인금액으로 교인들이 커피를 마시도록 한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이런 진정성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일이 계획되고 추진된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회이기 전에 삶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한남제일교회는 주민들의 목회자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서 원리는 “지역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늘 관심을 갖고 있다. 교회의 복지, 문화활동이 지역사회의 업체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큰 관심은 교회 다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 쉼터가 되어야 한다. 즉 영적 쉼터가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는 힘은 영성, 신앙에서부터 온다. 한남제일교회는 신앙에서 나오는 힘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행복한 마을,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존재한다.

결론

한국교회는 교회중심적 신앙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개교회가 강화된 장점과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교회중심주의 또는 교회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구원의 방주,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분리된 교회론, 건물중심의 교회론 등은 한국의 개교회주의가 초래한 편협한 교회론이다. 이런 교회론을 확장하고 세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려면 교회론이 확장되어야 한다. 여기에 에큐메니칼 신학이 필요하다. 공교회 토대위에서 모든 지역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 세계교회들과의 연대, 세계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공적 책임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교회는 항상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연합과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

한국교회와 같이 지역교회가 중심구조를 가진 상황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역교회 중심으로 정착하고 발전시켜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한국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 현장으로 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선교현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지역 에큐메니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교회에 기반한 에큐메니칼 운동과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지역의 필요성에 따른 연합활동의 항목들을 공동으로 발견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것을 위해 주도적으로 지역 에큐메니즘을 이끌어 갈 목회자와 교회가 있어야 한다. 전국의 흩어진 교회 사례들을 연구한 결과 지역의 교회들의 연합을 이끌어갈 지도력을 갖춘 목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역의 다양한 신학과 특징을 가진 교회들을 품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적합한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 목회자들의 코이노니아를 이끌어갈 진정성과 섬김과 포용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에큐메니즘을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인적 자원은 지역교회의 평신도이다. 평신도가 지닌 은사와 자원은 지역 에큐메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풍부한 자원이다. 목회자들이 교회간 네트워크를 형성할지라도 지역의 필요성에 접근하는 활동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의 주체적이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교회 제직을 지역의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평신도의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 에큐메니즘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 지역교회 안에 있는 자원들을 발견해야 한다. 모든 교회마다 각기 다른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 개교회주의로 인하여 이런 자원들을 서로 경쟁과 중복형태로 분산하여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지역 에큐메니즘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여 모든 교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로 인하여 힘이 분산되어 한국사회 전체를 포괄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역을 단위로 할 때 지역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 연합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교파주의 성격이 강한 한국교회는 앞으로 지역 교회들이 참여하는 지역 에큐메니즘 형태를 지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자 희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민경운, 제주와 산동선교 이야기(서울: 케노시스, 2015)

한국일, “에큐메니칼 공동고백과 실천: 한국교회협의회(NCCK)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선교적 반성과 전망”,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통전적 선교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239-273

세계교회협의회 역음, 이형기 옮김, 『세계교회협의회 역대총회 종합보고서』(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Konrad Raiser, *Oekumene im Uebergang. Paradigmwechsel in der oekumenischen Bewegung*(Muenchen: Kaiser, 1989), 45-47, 72, 172-177

한국일, “에큐메니칼 선교의 모델로서 농어촌 교회에 관한 고찰”,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통전적 선교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215-238

지역교회 차원에서 지역에큐메니즘을 훌륭하게 실현하고 있는 교회로서 부천의 새롭교회, 이원돈 목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원돈, “도시 지역사회 선교와 목회 사례 연구: 부천 새롭교회 중심”, 『지역교회의 선교와 목회의 구체화 및 미래 방향』, 제16회 소망신학포럼, 77-104

2015년 9월24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연합강좌 “다양한 목회유형”의 강의 중 “*The Local Church in Mission: Becoming a missional Congreg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Context and The Opportunities offered through Tentmaking Ministry*”, Lausanne Occasional Paper No. 39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을 말한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주요문서 및 해설집』(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3장은 필자의 줄지,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개정증보판(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9), 제2장의 부분에서 가져왔음을 일러둔다.

C. Smith and J. Pattison, *Slow Church*, 김윤희 옮김, 『슬로처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54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을 말한다』, 262. 생태계 파괴는 자연세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물량주의와 성장주의에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에도 나타나 대형교회들이 등장하면서 지역 교회의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새롭 교회에 대한 연구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서울: 동연, 2011); 이원돈, “한국교회 생태계에서 생명 마을 만들기과 생명망 목회”, 『마을 만들기과 생명선교』, 호남신학대학교 2013년 학술발표회 논문 제16집. 해석학 연구소/농어촌선교연구소 엮음(서울 한들출판사,2013), 39-62; 이원돈, “도시 지역사회 선교와 목회 사례연구: 부천 새롭교회 중심”, 제 16회 소망신학포럼. 『지역교회의 선교와 목회의 구체화 및 미래 방향』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3), 77-104; 김도일.한국일 공동연구,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하는 교회교육 모델 탐구”, 『다음세대 신학과 목회』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61-81, 104-111

이원돈, “한국교회 생태계에서 생명 마을 만들기과 생명망 목회”, 『마을 만들기과 생명선교』, 호남신학대학교 2013년 학술발표회 논문 제16집. 해석학 연구소/농어촌선교연구소 엮음(서울 한들출판사,2013), 54

위의 책, 56

박승남, 『플랫폼 선교를 통한 중국선교』, 미간행출판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선교신학 전공(2017), 19-22

시온교회 이야기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김영진, “마을을 두드리다”, 『마을 만들기과 생명선교』, 호남신학대학교 2013년 학술발표회 논문 제16집. 해석학연구소/농어촌선교연구소 엮음(서울: 한들출판사, 2013), 9-38; 동일저자, “농촌 지역사회 선교와 목회 사례연구”, 제16회 소망신학포럼. 『지역교회의 선교와 목회의 구체화 및 미래 방향』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105-136; 동일저자, “문화사역의 현장, 들꽃마당 시온교회 이야기”, 한경호 엮음, 『생명의 영성이 약동하는 농촌목회현장이야기』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8), 156-170

한남제일교회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통전적 선교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137-149; 김도일.한국일 공동연구, “다음세대의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하는 교회교육 모델 탐구”, 『다음세대 신학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6), 58-81, 84-95

마을을 지향하는 교회, 마을이 되는 교회:

생태적 전환(Transition)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을 키워드로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살핀다¹⁾

하 태 옥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대안교육학과)

1. 근대 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에 대한 비판과 대안 그리고 교회

교육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 다만 근대적 교육 제도로서 ‘학교’가 가지는 현대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접근해 온 입장에서 제도적 기관 (Institution)으로서 ‘배움과 성장’이라는 본질을 잃고 신화적으로만 남은 학교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교회의 새로운 전망을 찾으려는 한국 기독교계에 어떤 시사점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이 논의에 참여하고자 한다. 일리히가 주장한 것처럼 ‘현 교육제도는 교사의 목표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비학교화(Deschooling)를 통해 자신의 공부와 타인의 공부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정의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본다면 교회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를 뛰어넘어 ‘마을’로 상징되는 지역사회와 함께 새로운 배움의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실천되는 사례들이 영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교회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작은 영감의 단초라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

한국 대안교육운동의 시작은 분명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획일적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했다. 여기에 일본 제국주의 잔재와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더해진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교육문화 역시 1990년대 사회적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는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대안교육은 근대 학교교육 문제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대안교육이 단순히 기존 학교교육의 부정으로만 남지 않고 ‘새로운 안’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 어디로 어떻게 가자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짚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1997년 경남 산청에서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로 설립된 간디학교는 그 시작을 1994년

1) 이 글은 『마을교육공동체운동: 세계적 동향과 전망』 (2019, 살림터)의 8장 ‘영국의 마을교육공동체: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이에서 길찾기’를 고쳐쓴 것이다.

간디농장으로부터 시작했다. 간디농장을 세운 양희규는 미국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감명 받았던 마하트마 간디의 삶에 영향을 받아 간디의 단순한 삶, 노동하는 삶, 공동체 정신과 겸손함을 본받고자 하였다. 간디는 톨스토이 농장을 세워 자급자족을 통해 위대한 불복종의 정신을 펼쳐내었다. 스와라지(정치적 독립)와 스와데시(경제적 독립)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국인들로부터 외견상 독립이 이루어지더라도 영국식 삶을 살기위해 스스로 속박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양희규 역시 간디농장이 시대의 대안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간디농장과 간디학교를 통해 새로운 문명운동의 시발점을 촉발시키고자 했다.²⁾ 양희규의 동생으로 간디학교를 함께 세웠고 이후 비인가 대안학교인 제천간디학교를 분리독립시켜 이끈 양희창 역시 대안교육운동은 대안사회 운동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대안 교육이란 ‘교과서’를 통해 삶으로부터 분리되었던 학교교육과 지식을 다시 삶으로 회복시키는 ‘삶과 삶의 일치’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명적 위기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을 삶 속에서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안교육이 대안사회를 지향해야만 하며, 현재의 삶을 변화시켜내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³⁾ 많은 대안학교들이 생태주의적 세계관에 기반하고 생명, 평화, 민주, 공동체 등의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따라서 대안교육은 이제 단순히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선택지를 넓혀주는 역할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안교육운동 20여년을 지내면서 대안교육을 통해 자라난 청년들이 신자유주의 사회로 나아가 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이 시대에 대안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지와 그 대안이 짝을 짤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 대안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앞서 간디농장의 예에서 보듯 대안교육의 태생 자체가 대안공동체로부터 출발한 경우가 많았다. 초등 대안학교들 중에서는 아이를 기관에 내맡기지 않고 부모 공동체 안에서 함께 키우겠다는 뜻으로 시작된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발전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도시 마을공동체의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미산마을 역시 공동육아에서 출발해서 성미산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활동들이 꾸려지고 실험되었다. 경기도 광명의 범씨학교나 안양의 버리학교의 경우 지역YMCA가 생협운동을 토대로 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기반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틀을 열어낸 사례들이다. 전원형 기숙대안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와 부모들이 귀촌귀농을 하면서 자신들끼리, 혹은 지역의 선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마을활동을 꾸려내는 사례들 역시 금산 별무리학교, 제천간디학교, 산청 간디마을학교, 남해 상주중학교 등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르나 같은 방향으로 실험되고 있다. 매우 독특한 성취는 의정부의 몽실(꿈이름)학교다. 의정부의 비인가 대안학

2) 양희규(2005). 꿈꾸는 간디학교 아이들. 가야넷.

3) 양희창 외(2013). 흔들리며 피는 꽃: 제천간디학교 10년의 기록. 궁리.

교인 꿈틀자유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 특히 그 중에서도 공교육 교사 출신의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학교인 의정부여중을 혁신학교로 변화시키는 경험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학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학교 밖에서 대안학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공교육의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자치의 배움공동체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몽실학교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영국의 써머힐학교(Summerhill School)가 주창해 온 학생중심의 민주적 공동체로서 민주학교(Democratic School: Children's Democracy in Action)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실천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된다.

2. 생태적 전환의 교육과 마을공동체

영국에서 교육혁신 운동은 근대학교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생태적 문제제기에 있었다. 한국의 대안교육 태동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고로 살폈던 영국의 사례 중 하나가 하틀랜드의 작은학교(The Small School in Hartland)다. 이 학교를 설립한 사티쉬 쿠마르(Satish Kumar)는 인도출신의 생태평화운동가로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저항과 자립정신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간디의 제자로 무소유를 기반으로 한 토지헌납운동과 도보순례 운동을 펼친 비노바 바베로부터도 큰 감명을 받았다. 영국의 사회혁신가인 버틀랜드 러셀이 핵무기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티쉬 쿠마르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미국, 조지아, 모스크바, 파리, 런던을 무일푼으로 걸어 순례하면서 핵무기와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기원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행진을 실행하였다.⁴⁾ 이후 1973년 영국 서부의 작은 마을인 하틀랜드에 정착해서 소박한 삶을 실천하고 살고 있던 중 그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학생부족으로 폐교되고 한 시간 거리의 큰 도시로 통학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통학의 거리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지만 대규모 학교가 관계중심의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인간과 배움을 대상화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으로부터 삶의 모든 양태들이 대도시로 빨려들어감으로써 지역이 자생력을 잃어가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티쉬 쿠마르는 1982년 지역민들과 함께 작은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이 학교는 다른 공립학교들과 달리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사진, 요가, 도예, 목공 등을 가르쳤다. 이 학교의 생태평화적 가치와 인간관계 중심의 교육은 하틀랜드라고 하는 작은 동네를 넘어 영국 전역에서 인간규모교육(Human Scale Education)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인간규모교육운동은 영국사회에서 다양한 대안교육을 확산시키고 대규모 공교

4) Kumar, S. (1978). No Destination. Green Books.

육 학교들을 쪼개서 소규모 학교들로 분리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국에서 거주하면서 사티쉬 쿠마르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집필한 생태경제학자 E.F. 슈마허(Shmacher)와의 교류를 통해 큰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이론과 생태적 실천들을 교육적으로 나눌 수 있는 대안대학 슈마허 칼리지(Shumacher College)를 영국 데번의 작은 마을인 토트네스(Toteness)에 설립하였다. 영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토트네스는 오래전부터 대안적 공동체의 전통이 매우 강했던 지역이다. 1920년대 사회운동가였던 레너드 엘름허스트(Leonard Elmhurst)는 젊은 시절 인도의 시인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라빈드라 나트 타고르를 도왔던 경험을 통해 지역기반의 독립, 그리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은 바 있다. 미국의 부호였던 아내 도로시가 정리한 재산으로 토트네스 외곽지역을 매입하면서 다팅턴 홀 부지(Dartington Hall Estate)를 조성하고 예술가 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꾸렸다. 그리고는 이곳을 근거지 삼아 다양한 생태적, 예술적, 교육적 실험을 펼쳐나가게 된다. 영국 대안학교 운동 초기의 주요 학교 중 하나인 다팅턴 홀 학교(Dartington Hall School)도 이 곳에서 1928년 설립된 바 있다. 다팅턴 홀 학교는 여러 가지 부침 끝에 1997년 문을 닫았으나 이 학교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했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이웃 마을 애쉬버튼(Ashburton)에 샌즈스쿨(Sands School)을 열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다팅턴 홀 부지 안에는 슈마허칼리지를 비롯하여 초등대안학교인 파크스쿨(Park School), 다팅턴 예술대학, 다팅턴 여름음악학교, 현장연구소, 다팅턴 사회적기업가 학교 등, 토트네스적 삶의 철학을 독특한 학교들과 함께 다양한 체리티숍과 유기농 상품점, 농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에서 전환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토트네스에 실질적으로 전환마을을 시작하게 된 것은 퍼머컬처 디자이너인 롭 홉킨스(Rob Hopkins)로부터였는데, 여기서 퍼머컬처는 ‘영속적인(Permanent)’이라는 의미와 ‘문화(Culture)’라는 의미를 합성한 것이다. 즉 자연을 소비하여 쓰레기만을 남기는 근대 산업사회의 문화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환성을 기반으로 농업과 사회적 디자인을 통해 소비가 아닌 순환되는 구조를 추구한다. 생태적 디자인과 친환경 기술, 생태적 주거환경 등을 통해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자립 생활과 생산양식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퍼머컬처는 자연이 순환적으로 존재하는 질서에 순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현대사회에 대안을 제기하는 철학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고유성에 집중하며 자급자족의 생활방식과 유기농법을 지향한다.⁵⁾ 퍼머컬처의 아버지라 불리는 빌 몰리슨(Bill Mollison)은 퍼머컬처가 단일작물재배시스템과 같이 자연을 배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발만 하는 태도에 반하여

5) Hemenway, T. (2009), Gaia's Garden: A Guide to Home-Scale Permaculture. Chelsea Green.

모든 동식물들이 자기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사려 깊게 관찰하려는 철학적 태도라고 정의한 바 있다.⁶⁾

퍼머컬처 역시 호주의 크리스털 펠리스를 기반으로 그 철학을 구현하는 공동체와 교육을 구현해내고 있기는 하지만 철학과 기술 중심으로 주로 논의가 풀리는 흐름이 있다고 본다면, 전환마을은 같은 철학적 경향성을 가지지만 보다 지역공동체 운동의 흐름이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롭 홉킨스는 2004년 자신이 퍼머컬처를 처음 가르치던 아일랜드 킨세일(Kinsale)의 개방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에서 학생들과 함께 석유생산정점(Peak Oil) 시대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퍼머컬처의 원칙들을 적용할 과제들을 졸업과제로 연구했다. 킨세일 에너지 저감 실행계획(Kinsale Energy Descent Action Plan)⁷⁾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보고서는 화석연료 시대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음식, 공동체, 교육, 주거, 지역경제, 건강, 관광, 교통, 쓰레기, 에너지, 해양자원에 대한 각각의 에너지 저감 실행계획을 담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졌는데, 이것이 예상치 않게도 전 세계로부터 매우 큰 반향을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킨세일에서는 에너지 문제와 해법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었고 이는 ‘전환마을 킨세일(TTK: Transtion Town Kinsale)’이라는 프로젝트로, 그리고 민관협력의 실행체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 킨세일은 아일랜드의 어촌마을로 음식이 유명한 지역이지만 그 식재료의 90%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된다. 이는 농약과 화학물질, 운송에 들어가는 화석연료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킨세일은 마을 단위의 과수원, 농장 등을 만들어 지역식재료(Local Food)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 생산, 건강, 교육, 경제, 농업의 분야에서 경계를 넘나들며 마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짜는 것이었다. 롭 홉킨스의 과정을 함께 수강했던 루이스 루니와 캐서린 던이 전환마을에 대한 기본컨셉을 짰고 이를 킨세일 지방정부에서 받아들여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전환마을은 그러므로 지역의 자급력을 높임으로서 화석연료의 한계와 환경문제, 경제적인존성을 줄여내고 지역을 새롭게 상상하고 새롭게 세워내자는 풀뿌리 지역공동체 운동이다. 언급한 문제들의 인식은 전 지구적인 것이나 지역에서부터 그 해결책들을 하나씩 찾아 공동체적으로 문제해결책들을 실행해보자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나, 집단적 차원에서나,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돌봄의 문화를 강조한다. 실천적으로는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직업세계의 재편, 재교육과 상호지원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재지역화’를 수행한다.

전환마을은 킨세일에서 시작된 마을운동이자 킨세일 역시 전환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 최초의 전환마을로서 이 운동의 불을 붙인 곳은 앞서 살펴보았던 영국 남서부의 토트네스다. 그런데 왜 토트네스였을까? 토트네스는 인구 약 8200명의 영국

6) Mollison, B. (1991). Introduction to permaculture. Tasmania, Australia: Tagari.

7) Hopkins, R. (Eds) (2005). Kinsale 2021: An Energy Descent Action Plan. Kinsale Further Education College.

남서부 해변 지역 다투 강 하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인근 마을의 이름이 ‘다트강의 입(다트머스: Dartmouth)’인 것을 보면 그 지정학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영국의 건국설화에 따르면 트로이 출신의 브루투스(영국을 가리키는 Britain이라는 이름의 기원)가 처음 바다를 건너 도달한 영국땅이 바로 이 토트네스였다고 한다. 그 역사가 깊은 만큼 마을의 부침도 심했다. 앵글로색슨 웨섹스 왕국의 핵심지역 중 하나였지만 바이킹의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영웅 알프레드 대왕은 이 지역을 기반으로 바이킹들에게 반격함으로써 웨섹스 왕국을 지켜냈고, 이후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30개의 성채마을들을 만들어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토트네스는 그 중 하나였다. 위기를 겪으며 절박함 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온 역사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1520년대 토트네스는 영국 남서부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였다. 르네상스 시기 유럽대륙의 생활은 그릇 등 생활용품에서부터 무기와 예술품 등의 원재료로서 주석을 엄청나게 필요로 했는데 이 지역에서 그 원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에서 만들어진 주석과 청동은 다투강을 통해 바다로 나가 유럽대륙으로 수출되기에 매우 적합한 위치였다. 그러나 주석이 이 지역에 부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주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물이 엄청나게 오염되었고, 그 부산물인 모래가 물길을 막았다. 물길이 약해지자 대륙과의 무역중계지로서 역할을 좀 더 하류 쪽인 다투머에 빼앗기게 되었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주석과 청동의 시대가 끝나면서 1719년 마침내 이 마을은 경제적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다. 웨섹스 왕국의 전락기지로, 그리고 중세 상업도시로 이루어던 변영은 산업혁명 이후 잉글랜드 중북부의 산업도시들이 중요해지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토트네스는 언제 끊길지 모르는 자원을 무작정 소비하면서 풍요를 누린다는 것,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자원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역사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지역의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여기서 회복탄력성이란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다. 물론 충격을 받았을 때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에, 확실하지 않은 것에, 이익에 기반한 관계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위험했다. 마을의 힘으로 마을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것, 자원이 끊기거나 위기가 오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내부의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실천은 철학적으로는 생태적이었으며, 예술적인 다양성 위에서 관계를 기반으로 한 마을운동이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엘름허스트 부부가 조성한 다팅턴 홀 부지가 그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정신과 실천의 심장이자 지역운동의 새로운 창의성을 싹틔울 수 있는 모판이었다. 현재는 다양한 예술과 생태적 삶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대안의 안식처(Alternative Haven)’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고, 영국의 권위있는 신문인 옵저버(Observer)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동네(The Country's funkier address'라고 표현바 있다.

이런 토트네스에도 20세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다시 한 번 지역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었다. '최저가'를 강조하는 대형 슈퍼체인 모리슨(Morrison)의 물량공세에 지역의 작은 상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지역식재료나 푸드마일리지 등과 같은 이슈는 이 파고에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새로운 운동이 필요했다. 2005년 록 홉킨스가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2006년 이 문제에 대해 불을 붙이는 첫 번째 행사를 열었고 뒤이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출범했다. 지역화폐인 토트네스파운드,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 유기농 중심의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상점과 식당 그리고 그 가이드북, 양조장과 유기농 채소 농장, 수공예품을 비롯한 지역생산현장, 공유나눔텃밭인 가든쉐어링, 토종씨앗 보존, 야생초를 활용한 먹거리와 약용 등 30여개의 실험들이 이 지금까지의 흐름이다. 물론 모든 실험들이 다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고안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민들의 실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도전이 의미있다. 이런 지역운동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여의 방식은 철저하게 생활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원하는 전환가정(Transition Homes) 여섯이 모여 '함께 전환하는 모임'이 만들어지면 이를 전환이웃(Transition Street)으로 지정한다. 자신의 집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싶은 사람은 시설을 먼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여섯 가구 이상을 모아 에너지 절약과 단열개선 사업부터 참여하며 '함께 전환하는 모임'을 시작한다. 이는 단순히 시설설치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생활 속 에너지 절감을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결사가 된다. 이들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환거리는 토트네스 전역에 60여개 이상 있으며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 전환가정-전환거리-전환마을이 점-선-면으로 만나는 구조다.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개수(양적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망이 만들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학교가 이론화와 연구, 역량강화와 디자인 확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바탕에는 도로서 엘름허스트가 이야기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Free from fear)'가 기반한다.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발상으로 지역기반의 다양한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는 발현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실험들이 자리매김하기에 토트네스는 최고의 실험실이다.

BBC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마을(Town)을 진행한 지리학자이자 탐험가 니콜라스 크레인(Nicholas Crain)은 2030년까지 인구의 92%가 도시화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시대 마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살핀바 있다. 마을이 주목받을만한 이유 중 하나는 도시적 삶이 만들어 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새로운 발상으로 실험해 볼만한 적절한 규모라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다큐 시리즈에서 토트네스의 전환마을을 다루며

‘도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마을에 기반한 실질적 전망의 청사진이 세계를 깨우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 토트네스와 킨세일을 중심으로 하는 전환네트워크는 세계에서 다양한 전환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영감과 실천력을 제공하여 현재 영국 내 300여개 마을은 물론 유럽, 북미, 호주, 아시아 등 세계 50여개 나라의 다양한 지역에서 전환마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환마을은평이나 앞서 이야기 했던 대안학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으로 새로운 전망들을 설계하고 함께 연계하는 중에 있다.

3.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교육, 그리고 도시 마을 공동체

위의 사례가 생태자연주의에 기반한 지역력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과는 같은 면서도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런던의 BBBC(Bromley By Bow Centre)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킨 사례로서 BBBC는 매우 독특하고도 독보적인 것이다. 물론 전환마을의 의제가 수립되고, 한 도시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되어 온 과정은 전형적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철학적 기반이나 출발점, 그리고 그 방향성은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또 다른 측면을 살필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 정신에서 출발한다. 앞에 붙는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때만 의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천민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 존경할만한 ‘기업가’를 갖지 못한 탓에 기업가 정신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적 보상과 이속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물질적 동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윤창출이라는 경제적 동기가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선의, 헌신, 책임성 같은 발상보다는 이윤을 통한 재투자와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 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이란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며, 그 것이 발휘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하여 열정적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발상이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가정신은 우선 불편한 균형 상태를 잘 포착한다. 참을만한 불편함으로부터 기회를 붙잡아 새로운 해결방안을 고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감, 창의성, 동기부여, 실천력, 용기, 도전적인 근성 따위가 기본이 되어야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상적이기만 하거나 실제 적용되기 어려운 것은 혁신이 되지 못한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적인 해결방안이 성과를 통해 증명되었을 때 확인되는 사후적 개념이다. 또한 혁신적인 해결방안은 단순히

일회적인 문제해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여 스스로 재창조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이 기업가정신에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 가치지향적인 차별성이 생긴다. 그 차별성은 기업가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사회적 기업가는 이타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단순화되기는 어렵다. 기업가든 사회적 기업가든 자신이 포착한 기회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비전을 추구하며,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시장이든 비영리 분야든 간에 사업가들은 시간, 노력, 위험감수, 자본을 쏟아부은 결과로서만 무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성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바로 가치다. 사업가는 시장이 혁신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회적 기업가는 시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주요 타깃으로 가치를 제안한다. 물론 사회사업가들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사업가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대단히 호혜적이어서 인류애적 사랑에 기대거나 정부/관공사 등의 예산에 기대게 된다. 반면 사회적 기업가는 그 프로젝트의 생명력과 생태계, 그리고 자립가능성을 고민한다.⁸⁾

영국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을 정규교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인들의 66%가 공교육이 개인의 생각이나 꿈을 키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⁹⁾ 지금까지의 교육이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로부터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때 교육의 역할이란 그 관심과 흥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가를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교육은 내가 배우고 있는 그 내용과 기술이 내 삶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에도 어떻게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때문이다.¹⁰⁾ 최근 한국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해 가르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안학교들은 ‘작업장학교’ 등의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실험해볼 수 있는 교육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BBBC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BBBC를 시작한 앤드류 모슨(Andrew Mawson)은 감리교 목사로 영국에서는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1984년 겨울 그가 런던 동부 브롬리 바이 보우(Bromeley By Bow)라는 지역의 합동개혁교회(United Reformed Church) 담임목사로 초빙 받아 갔을 때 200석 규모의 이

8) Martin, R., & Osberg, S. (2007). *Social Entrepreneurship: The Case for Defini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pring 2007.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9) HISCOX DNA of an Entrepreneur Report 2015. <http://www.hiscox.com/small-business-insurance/blog/hiscox-dna-of-an-american-entrepreneur-2015/>

10) Cartherall, R. et al. (2017). *Social Entrepreneurship in Educatio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to Address Society's Needs*. British Council.

교회에는 12명의 70대 이상 노인들만이 앉아있었다. 교회는 냉골이었고 물이 나오는 곳은 남자 화장실 수도꼭지 하나뿐이었다. 그는 교회를 끌어안고 있다가 돌연사한 전임 담임목사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마을로 나섰다. ‘런던 동부(East London)’라는 말은 마치 서울의 ‘강남/강북’처럼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선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는다. 그 곳은 유럽의 경제적 중심지인 씨티 지역으로부터 더 동쪽으로 치우친, 전통적으로는 공장과 그 배후 주거지역들이었으나 이제는 낙후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물가가 형성되어 (식민지)이주민이나 망명자, 가난한 사람들의 유입이 더 많고, 범죄율 등의 사회지표는 매우 열악한 지역이기에 누구나 기회만 되면 떠나고자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모슨 목사가 맡은 브롬리 바이 보우 지역도 교회를 둘러싸고 50개의 언어가 쓰이고, 주민의 1/3이 빈곤의 텃에 걸려있으며, 3년 주기로 임대주택을 전전해야하는 상황들이 일상적이었다. 수십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지역이었다. 모슨 목사는 대처수상식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도, 당위성만 가득한 좌파들의 이론적 주장들도 모두 거부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외로움이나 좌절을 분노나 침잠으로 표출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눈에 띄는 심각한 현상들을 내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돌봄기관의 그물망에는 딱히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 그들의 문제는 쥐꼬리만한 보조금이나, 그 근거가 될 보고서, 예산이 많이 드는 약물처방 따위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점을 모슨 목사는 깨달았다. 오히려 마을에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갖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도 함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모슨 목사는 교회의 운영에 매달리기 보다는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교회의 빈 강당을 플랫폼으로 그 욕구들이 어떻게 풀릴 수 있을 것인지 의논하고 실행에 옮겼다. 함께 시작한 사람들은 런던 중심가의 높은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나 그곳까지 온 젊은 예술가 그룹들이었다. 이로서 교회강당을 작업실로 내주게 되었고 점차 교회의 노인들과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 관계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는 마을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굳게 닫힌 창문 뒤에 많은 잠재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끄집어 내 줄 실용적인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마을사람들과 그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주어진 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실한 공무원들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통 선의로 몸을 감싼 채 지역 비즈니스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므로 무조건 거부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선단체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 간혀있는 주민들의 닫힌 의식도 있었다. 때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성의 상징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장애들을 돌파해가면서 사회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실험실로서 브롬리

바이 보우 센터(BBBC)가 건설되었다.

BBBC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욕구'다. 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외부로부터 주어 주는 이전의 전통적인 수혜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욕구를 실현해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민들이 다양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것이 단순히 일회적이고 고립된 서비스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커다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들어 BBBC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지역보건소는 단순히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 그 곳은 지역의 정보가 순환되는 허브센터이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상담센터이며, 직업과 산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다. 의사가 발견한 사실은 사회복지사에게로, 노무사에게로, 지역활동가에게로 연계되어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높인다. BBBC는 촌스럽고 낙후된 공공건물이 아니라 혁신적 디자인과 따뜻한 환대가 느껴지는 창의성과 노력의 플랫폼으로서 BBBC는 현재 100여명의 스텝이 매주 100개 이상의 활동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3700평의 지역공원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3억 파운드(약 4500억) 규모의 임대주택 개발을 맡아 8천여 개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공공업무도 담당한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동부지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유치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와 연계된 로워리 밸리(Lower Lea Valley)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학교를 새롭게 혁신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교육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이런 성취들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난제들을 뚫고 만들어 낸 성과다.

여기에는 지역재생에 대한 영국(England) 정부의 정책적 변화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지방적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전달이나 지역재생 사업을 추진했다면 1990년대 들어서부터는 '자발적 시민사회영역(Voluntary Sector)'과 '시장 영역'에 예산과 주도권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공공조직을 '조달청'을 통해 납품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우리 접근법으로서는 낯설지도 모른다. 정책파트너로 삼기에는 미약하고 미숙하고 심지어 미심쩍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필요한 부분만 취하는 공모사업적 성격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는 1988년도부터 2010년까지 12년간 광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설치하면서 잉글랜드를 9개 권역으로 나눠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원했다. 광역개발청은 약 20억 파운드(약 3조원)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면서 고용창출, 건강 증진, 범죄예방, 교육기회 향상, 거주지 개선 등의 영역 중에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장했다. 포괄적인 단일 예산을 통해 지역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로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인 '자발성'이 발현될 기반이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눈을 뜨고, 자율적 권한을 통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할 기회를 갖게 된다.

앤드류 모슨 목사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가장 잘 구현해내었다. 가난한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지역적 필요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자조그룹을 만들어 직접 해결하고 애쓰면서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정부의 지원금을 따오고, 심지어 지역의 대형마트 체인과의 사업적 제휴를 맺으면서 런던 동부의 극빈곤층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4.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교육과 교회에 주는 시사점

앞서 명시한대로 이 글은 영국의 마을교육공동체의 총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사회에 핵심적인 의제로서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영국의 가장 두드러진 각각의 실천사례로부터 우리는 어떤 배움을 얻어야 할 것인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두 사례는 서로 다른 초점으로 접근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연결되어있다. 전환마을을 설립하고 움직여온 원리는 매우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BBBC는 생태적 전환을 그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으나 그 곳에서 진행되는 많은 프로젝트들은 주민들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생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사례를 우리 사회와 교회의 맥락에 비추어 통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성장주의 근대화를 추구해 온 한국사회에서 학교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물질적 성장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해왔다. 즉, 베버적 관점에서 개인의 물질적 풍요가 사회적 발전을 가져온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그 교육적 역할에 충실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공공성이나 시민사회적 성숙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레토릭으로만 남았다. 교회 역시 성장주의 속에서 물질주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구체화 시키거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되었는지 되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 성찰 속에서 학교중심의 교육과 교회 중심의 신앙에 대한 '전환'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세속적 성공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적 전환을 만들어 낼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만들어 낼 교육은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신앙적 지향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로 관계중심의 사고가 요청된다. 근대가 만들어 낸 개인주의 승자독식의 문화를 끊고 소통과 관계를 통한 사회적 그물망을 만들어 냄으로써 새로운 대안이 가능하도록 연결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전근대적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개인 중심의 근대사회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필연적으로 양극화와 소외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들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마을’이 소환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호출되는 마을은 단순히 복고적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구현을 위해 교육과 교회가 어떤 전망을 내어놓을 수 있을지 다양한 모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환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학교, 지식중심의 교육을 넘어 관계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당위적 필요성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학교 없는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교의 문제들을 수정하고 향상시키기 보다는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으로 새로운 상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회 역시 전통적인 의미의 예배처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기독교적 역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옥희 외(2016). 마음과 맘을 심은 학교. 광명YMCA범씨학교.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용어사전. 하우.
 보리편집부(1997).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보리.
 쓰지 신이치(2014). 사티쉬선생, 최고인생을 말하다. 달팽이출판.
 알렉산더 니일(2006). 자유로운 아이들 서머힐. 아름답드리미디어.
 양희규(2005). 꿈꾸는 간디학교 아이들. 가야넷.
 양희창 외(2013). 흔들리며 피는 꽃: 제천간디학교 10년의 기록. 궁리.
 엘리엇 레빈(2004). 학교를 넘어선 학교, 메트스쿨. 민들레.
 윤태근(2011). 성미산마을사람들. 북노마드.
 이반 일리치(2009). 학교 없는 사회. 생각의 나무.
 이종태(2007). 대안교육 이해하기. 민들레.
 조한혜정(2007). 다시, 마을이다. 또 하나의 문화.
 하태욱(2018). 대안교육 제도화의 흐름과 방향. 민들레 116호(2018. 3-4월호)
 하태욱 외(2015). 심표형 꿈의학교 추진 운영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Cartherall, R. et al. (2017). *Social Entrepreneurship in Educatio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to Address Society's Needs*. British Council.
- Gordon, T.(1986). *Democracy in One School: Progressive Education and Restructuring*. Routledge Falmer.
- Hemenway, T. (2009), *Gaia's Garden: A Guide to Home-Scale Permaculture*. Chelsea Green.
- HISCOX DNA of an Entrepreneur Report 2015. <http://www.hiscox.com/small-business-insurance/blog/hiscox-dna-of-an-american-entrepreneur-2015/>
- Hopkins, R. (Eds) (2005). *Kinsale 2021: An Energy Descent Action Plan*. Kinsale Further Education College.
- Jeffers, G. (2007). *Attitudes to Transition Year: A Report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 Kumar, S.(1978), *No Destination*. Green Books.
- Martin, R., & Osberg, S.(2007). *Social Entrepreneurship: The Case for Defini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pring 2007.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Mawson, A.(2008). *The Social Entrepreneur: Making Communities Work*. Atlantic Books.
- Mollison, B.(1991). *Introduction to permaculture*. Tasmania, Australia: Tagari.
- <http://www.bbbc.org.uk/>
- <https://crystalwaters.org.au/permaculture/>
- <https://transitionnetwork.org/>
- <https://www.transitiontowntotnes.org/>

선교형교회란 무엇인가? -Fresh Expression의 실제

오동균 사제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교육원장, 청주산남교회)

새로운 교회의 표현(Fresh Expression) 운동의 배경-성공회의 배경에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Fresh Expression of church)”을 전 캔터베리대주교 로완 윌리엄스는 ‘혼합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통해 교회의 전통의 여러 갈래들이 새롭게 하나의 미래적 형태로 표현된 것임을 암시하였다.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잉글랜드 교회에서 발간한 <선교형 교회 Mission Shaped Church>에서 선교형교회의 등장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곧 ‘Fresh Expressions’는 새로운 교회형태를 지칭하는 운동의 명칭이 되었다. 지금은 영국에서 성공회와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밖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운동을 지칭하며 미국과 그 외의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영국교회는 70년대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교회의 출석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의 문제들, 세속적이고 대단히 유사종교적 형태를 띠는 문화적 영역에 교회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문제 등 위기를 이식하게 된다. 그러한 영국교회에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몇몇 복음주의 권의 교회들에서부터였다. 그러나 단지 복음주의 형태의 교회 뿐 아니라 고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던 교회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교회 밖의 크리스천들에게 다가서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한쪽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통적인 교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새로운 교회의 부상엔 교회내부에서 교회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부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영국 교회의 역사에서 패리시(전도구) 내에서 전혀 다른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교회가 교회개척을 하나의 선교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1994년 <새땅 개척하기 Breaking the New Ground: church planting in the Church of England>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전통적 전도구 교회체제를 고수해 오던 영국교회에서 새로 개척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영토적 관점의 교회에서 벗어나, 지리적 영토가 아닌 새로운 영토를 드러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영국교회의 전도구(parish)란 영국의 국토 전체를 행정적

경계와 같이 나누어 있어서 빈틈이 없던 영국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의 영역으로 등장시켰다는 것은 이제 전도구로 분할된 영국의 지리적 국토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회 영역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새로운 표현으로서 FX운동은 이제 영토적 교회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었다.

영토적 교회를 넘어서 새로운 교회의 영역은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속적 삶의 영역이었다. 예전에는 이곳은 세속이었고 교회가 자신의 영토로 다스려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실제 다스릴 수 있는 영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문화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교회는 이제 자기 자신의 땅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하느님의 선교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기초에는 하느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있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선교하신다는 단순한 진리는 교회 밖에 하느님이 활동하시고 그곳에서 하느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모임(에클레시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하느님의 선교’ 신학은 선교의 대상이었던 제3세계에서 발견된 신학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유럽의 기독교 세계에서 ‘우리 문화 속의 복음 Gospel in Our Culture’을 새롭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을 강조한 레슬리 뉴비긴 주교에 의해 유럽도 새로운 문화적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북미의 복음주의 진영에서 ‘우리 문화 속의 복음(Gospel in Our Culture, GOC)운동’은 ‘선교적교회 missional church’라는 새로운 교회론으로 발전하였다. 유럽 기독교의 전체적인 퇴조의 위기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회는 기독교국가 문화 속에서 사회의 지배기구로서 존재해 왔지만 20세기 후반 급속한 세속화와 함께 퇴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통적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의 교회’라는 새로운 개념이 가능하기까지 유럽의 기독교는 여러 신학적 논쟁과 비판을 지나야만 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기독교는 이제 교회 밖에 존재해오던 탈기독교신자들, 외국인들, 그리고 신문화적 경향들 가운데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만 했다. 그 결과 영국에서 등장한 운동이 ‘새로운 교회의 표현 Fresh Expressions of the church’라는 운동이다. 영국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것을 <선교형교회 Mission Shaped Church>라고 불렀다.

<선교형교회>에서 나타난 Fresh Expressions의 형태들

영국교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을 표현하는 말들은 여러 가지였다. 먼저 새로운 교회형태(new forms of church)는 교회의 내적 핵심은 변하지 않고 외관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교회가 되는 새로운 길(new ways of being church)’은 교회라는

단어대신 회중, 교회출석을 제자됨으로, 신자등록 대신 공동체에의 헌신으로 대체하는 내적 변화를 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이머징교회'는 로버트 워렌이 1990년대에 쓴 <선교하는 회중 세우기 Building Missionary Congregation>에서 유래하였다. 떠오른다는 것은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 표현에는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선교형교회>에서는 “교회의 새로운 형태 Fresh Expression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영국교회 성직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임명을 받을 때 하는 <동의선언 Declaration of Assent>의 서문 중에 “which faith the Church is called upon to proclaim afresh in each generation. 교회는 각 세대마다 신앙을 새롭게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표현에서 기인하였다고 한다. 이 말은 첫째, 기존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둘째는 선교상황에 개척팀이 들어가 그것이 무르익어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한다.

<선교형 교회>는 회중분석을 통해 ‘교회를 떠난 이들’에 대해 주목했다. 영국교회의 회중은 정기출석자(약 10%, 2개월에 5-8회 참석); 주변참석자(10%, 2개월에 1-3회 참석); 개방적 이탈자(20%, 이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접촉과 초대를 통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집단); 폐쇄적 이탈자(20%, 상처와 환멸을 경험하고 교회를 떠났으며 돌아올 의도가 없는 사람); 교회 경험이 없는 비신자(친구나 가족의 장례식, 결혼식 이외에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 로 구성된다. 즉 출석신자는 20%,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냉담자 20%,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냉담자 20%, 비신자 40%라는 것이다. 즉 60%의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더 이상 그들을 ‘불러들이는’ 방식이 아닌 ‘그들에게 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의 새로운 표현 Fresh Expressions’는 그들에게로 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Fresh Expressions 에 해당하는 교회들의 공통점

- 제자 양육과 관계적 선교를 위한 소그룹의 중요성
- 주일 아침에 모이지 않는다.
- 특별한 네트워크와 관계가 있다. (예, 직장교회, 학교교회 등)
- 탈교파적이다. 비록 지도사제는 특정교파에 소속되어 있겠지만 구성원들은 다양한 교파 출신이며 비신자였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 몇몇 성장한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Soul Survivor, Holy Trinity in Bampton, New Wine, Reform, St. Thomas Crooks in Sheffield)

다양한 새로운 표현들

- 대안예배 공동체

- 바닥교회 공동체(Base Ecclesial Community)
- 카페교회
- 셀교회
- 지역사회 운동에서 발생한 교회
- 다중회중과 주중모임
- 네트워크 중심교회
- 학교회중모임, 학교교회
- 구도자 교회
- 전통적인 교회개혁
- 새로운 관심을 자극하는 전통형식의 교회(고교회, 새로운 수도원 운동 등)
- 청년회중

Fresh Expressions 와 파이어니어

(HTB와 St. Mellitus College/ CMS와 Oxford Cudsdon College)

영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Fresh Expressions 운동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을 신학적으로 훈련하고 사역자를 양육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성직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양성해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영국의 Fresh Expressions 운동은 이러한 신학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미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발제자는 지난 9월에 영국을 방문하고 교육과 훈련의 현장을 보고 왔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평신도들의 새로운 자각과 그들을 사목자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느꼈다.

St. Mellitus College

2007년 런던교구와 첼스포드(Chelmsford)교구가 함께 설립한 신학교육기관이다. 총장은 Graham Tomlin Bishop of Kensington, 학장(Dean)은 The Revd Dr. Andy Merton(앤디 머튼)이다. 이번에 저희들을 맞이해 주신 The Revd Russell Winfield는 우리식으로 부학장인데 공식명칭은 Director of Development이다.

초창기 St. Mellitus College의 설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HTB(홀리 트리니티 브롬튼)교회이다. 이 교회는 1970년대부터 복음주의적 사목을 준비하면서 알파코스를 만들어 평신도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서와 신앙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1980년대에 알파코스로 교회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 교회는 평신도들의 신앙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St. Paul's Theological

Center(PTS)를 설립하여 일종의 평신도 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은 15개정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개척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HTB교회의 성장을 다른 교구에도 접목시키고 영국교회의 다른 전통과 합류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실험적인 신학교가 필요했다. 그래서 런던교구와 동쪽 옆에 있는 Chelmsford 교구는 최초의 런던주교인 Mellitus의 이름을 따서 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하여 초창기에는 매우 느리게 발전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 켄싱턴의 성 유다(St. Jude) 교회로 옮기면서 비약적 성장이 시작되었다. 2013년 리버풀교구에서 North West 센터를 설립하였고 지금 랭카스터 교구의 주교가 된 Jill Duff에 의해 5개교구(Blackburn, Carlisle, Chester, Liverpool, Manchester)가 참여하는 풀타임 성직자 서품 과정이 시작되었다.

2017년 플리머스 교구 성 마티아교회에서 시작된 SouthWest 센터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360여명의 신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공부하고 있다.

성 멜리투스대학의 교육과정

- 성공회 성직후보자 양성과정(풀타임: 주간의 1/2은 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훈련감독을 받는다.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들은 학교에 거주하면서 학업을 수행한다. 파트타임 신학생은 자기 직업생활과 지역교회 활동을 유지하면서 수행하는 과정)
- 평신도 봉사자 및 사목자(라이선스) 양성과정
- 신학대학(학사)과정
- 신학대학원(석사)과정-크리스찬 리더십, 신학석사(Theology, Minisatry and Mission MA)
- 교회지도자 과정: 다양한 교단배경을 가진 교회지도자들에 대한 신학과 사목 심화과정
- SPTC(성 바우로 훈련센터) 출신의 학생에 대한 신학입문과정(신학기초 프로그램, 비학위 신학과정)
- 이즈링턴 교구 주교 Ric Thorpe 주교가 지도하는 교회개척지도자 과정

홀리 트리니티 인 브롬턴(Holy Trinity in Brompton, HTB church)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교회(성공회) 소속의 교회로 런던 서쪽 브롬턴(Brompton), 켄싱턴(Kensington) 지역에 5개의 교회를 모두 통칭해서 HTB 교회라고 부른다. 브롬턴에서 시작하여 여러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인근의 다섯교회는 기존의 런던교구 내의 전도구교회 또는 폐쇄된 전도구교회를 사용하여 하나의 교회로 활동하고 있다. HTB 교회는 알파코스를 처음 시작한 곳으로 유명하다. 알파코스는 1985년 이 교회에 부임한 Sandy Millar (후에

우간다 성공회 보좌주교가 됨)에 의해 90년대에 시작되었다가 2005년 후임으로 부임한 현재의 관할사제 니키 검블(Nicky Gumble)에 의해 발전되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또 교회도 많이 성장하여 15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여러개의 네트워크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St. Paul's Theological Center를 통해 평신도들의 신학훈련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더 전문적인 신학훈련과 성직자 과정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St. Mellitus College 에 진학하게 된다.

지금은 은퇴한 Sandy Millar 주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알파코스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전환은 사목은 기독교인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고 술회하였다(2019년 9월16일, 저녁 토크쇼). 그는 목회중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면 기도해 주곤 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평신도들에게 왜 당신들이 직접 치유기도를 하지 않느냐면서 평신도들을 치유기도에 참여시키는 집회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발제자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마침 그분과 니키 검블이 토크쇼처럼 하는 저녁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찬양하면서 치유예배가 진행되었다. 이 치유예배에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은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생동감있고 감동적인 예배였다.

HTB 교회에서 보여주는 fresh expressions 는 평신도 사목을 통해 발전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평신도들이 신학공부에 참여하고 그들이 사목자로 봉사하면서 마침내 성직자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비기숙형 성직훈련을 받으면서 주중의 절반은 교회 혹은 자신들의 네트워크 공동체를 섬기고 나머지 반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CMS와 파이어니어

또하나의 fresh expressions 운동을 이끌고 있는 단체는 교회선교회(Church Mission Society)이다. CMS는 1799년에 월버포스같은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Clapham Sect라고 불리는 활동적인 복음주의자 그룹이 설립한 영국성공회의 선교회인데 세계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선교회로 유명하였다. 지금도 전 세계에 CMS 선교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CMS는 영국 내에서 파이어니어(Pioneer)라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 fresh expressions 운동의 사목자들을 길러내면서 그들이 영국지역 내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파이어니어는 이 선교회의 평신도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이름이다. 이 파이어니어는 현재 영국의 창조적 사목과 선교 프로그램으로 평신도들이 창조적으로 자신들의 헌신과 투신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선교를 이루어 가는 것을 돕고 있다. 파이어니어는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선교에 부름받고 나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 선교회를 통해 무엇이든 자신이 선택한

공부와 방향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파이어나이아 양성과정에는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individual module,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성직과정 등이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에 본부를 둔 CMS는 학위과정을 옥스퍼드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하여 이들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의 새로운 교회운동

한국의 기독교는 선교된 교회로서, 선교사들의 영향아래 조선말 근대화, 식민지 시기, 그리고 해방 후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주의적 기독교라는 특이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해방 후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반공을 내세운 보수정치세력이 기독교를 진영화하였고 이것은 주로 미국개신교의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됨을 말해주었다.

전후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탈바꿈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오순절파 운동에 영향을 받은 교회들인데 이들은 도시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에 열광적 신앙으로 위로하는 교회였다. 기존의 전통교단 출신의 개신 교회들은 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변화되었다. 이들은 축복과 복음을 동일시하는 번영신학을 기초로 한 오순절주의 신학과 한국의 반공이데올로기를 결합한 기독교였다.

이 시기에 유류교회, 특히 독일교회와 WCC의 지원을 받은 에큐메니컬운동이 전개되어 새로운 성장을 한다. 에큐메니컬운동은 기존 교단의 체계를 그대로 한채 일종의 교단주의적 일치운동을 띠게 되지만 전체적인 보수 반공기독교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80년대까지 한국기독교 중심교단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중심교단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한채 민주화 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그 지도력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에큐메니컬운동의 이데올로기적 동력은 상실되고 민주화운동의 영역에서의 지도력도 또한 약화되었다.

해방이후 한국기독교의 성장은 친미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복음주의적이며 오순절파 운동을 통한 교회성장의 흐름과 민주화운동을 앞세운 에큐메니컬운동의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흐름은 90년대 이후 신세대, 신문화의 흐름 앞에 위기와 변화를 겪게 된다. 정치적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성장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는 80년대 말~90년대중반까지 기독교는 어느정도 기존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IMF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진격, 정보화사회로의 변화, 각 세대간의 갈등과 격차 등 사상 유래가 없는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독교는 이러한 와중에서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정치적 뉴라이트 운동에 의해 장악당하고 부패와 모순을 안은채 거대교회 중심의 성장주의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겪는 위기는 성장주의로 가려질 만한 것이 아니었다. 고령화사회와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되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단과 부패의 악순환은 더욱심화되고 있으며 보수적 근본주의 신앙이 더욱 맹목적인 성장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교회는 소수의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계속 부추기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의 교회들은 소형화, 고령화, 세대절벽 등의 현상으로 존폐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의 극대형교회들이 자기교회의 성장을 위한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 편향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한국기독교는 한국사회에서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소형교회들은 존립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새로운 문화적 흐름에서 외면당하고 대처할 능력들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서구유럽교회가 겪었던 위기를 그대로 겪고 있다. 70년대 유럽기독교는 세속화와 급진적 청년문화, 새로운 영성의 도전등으로 커다란 위기를 겪어냈다. 그러나 영국의 교회에서 보여주듯이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교회론이 등장하여 쇠신해 나가고 있는 흐름은 평신도들의 지도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 중심의 지도력으로 넘어설 수 없었던 동성애 이슈를 비롯한 성소수자들, 그리고 난민과 이민자들, 미래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문화적 도전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방향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변혁과정에서 교회가 이를 수용하는 가장 큰 동력은 이들을 배척하는 지도력 대신 이들을 포함하는 평신도들이 기독교의 중심지도력을 형성하는 변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평신도 중심의 FX운동

나는 이 발제에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운동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한국교회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고자 한다.

위에서 말한 ‘교회의 새로운 표현(Fresh Expressions of the Church, FX)’이라는 운동은 바로 서구교회가 겪은 위기에서 평신도들과 교회밖 기독교인들의 자각을 통한 새로운 교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FX 운동의 기초

- Missional 선교적 : FX사업은 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FX운동은 교회신도들을 위한 성서연구가 아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존재한다. 사람들이 더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회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창출해 내야 한다.

- Contextual 맥락적: FX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적절한 문화적 방법을 찾고 있다. FX운동이 시작될 때는 교회와의 연관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 Formational 양성 : FX 운동은 제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FX는 제자도를 시도한다. FX운동에서 제자도는 함께 사는 삶의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사회적 학습을 위한 토론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만들어 낸다.
- Ecclesial 교회적(회중적): FX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맥락 가운데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개혁운동은 교회 내 평신도들에 대한 새로운 교회와 교양운동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선교담당하는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 ‘가나안신자’라는 용어가 발생한 것도 이러한 교회밖 기독교인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필요와 문관하다고 볼 수 없다. 과거에는 교회에 ‘안나오느’ 신자들을 ‘냉담자’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오히려 ‘안나가’라는 주체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전망을 살펴보게 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가나안’이라는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를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볼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교회 밖의 평신도들이 그런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운동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경우 이단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독립교회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교회들도 사실은 성직자(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리더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교회는 어떻게 교회 밖의 평신도들이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영국교회는 새로운 교회의 땅(New Ground), 즉 새땅 개척하기라는 주제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였다. 교회 내의 선교적 의지를 이러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변혁하는 과정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위에서 세계성공회의 문헌들에 나타난 변화는 복음화에 대한 지향이 이러한 새로운 교회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형 FX의 시작을 위하여

한국에서 프레스위 익스프레션에 위의 기준에 맞추어 살펴보려 하면 여러가지 형태의 새로운 교회형태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아직 기존의 교회 혹은 대형교회가 시도하는 하위그룹 정도로 자리매김 된다면 이것은 프레스위 익스프레션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 FX가 필요한가? 한국적 상황에서 FX와 유사한 형태는 과거

에 없었는가? 아니면 현재는? 등등의 질문이 필요하다.

왜 한국에서 FX가 필요한가?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성장한 모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위주의 교회에 매몰되어 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형태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교회들이 가지고 있다. 즉 한국교회에서는 소수이며 배제되는 모델의 소형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의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형교회는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유형이지만 이미 이들은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성장을 위한 자기변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FX은 대다수 소형교회들이 자기부정을 해야하는 박탈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FX은 자칫 소형교회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하고, 더 나아가 대형교회의 외곽조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더군다나 한국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회성장적 개교회주의로 인해 FX운동에 속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이 자칫 이단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FX운동의 조직론적 특징을 보면 이단 교회가 접근하는 모습과 외양이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FX운동이 존재할 수 있는 당위성이라면 한국교회의 대다수 교회가 젊은 세대, 즉 미래세대에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의 문화적 상황에서 기독교는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기존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들만의 신앙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문화를 찾아내어 결합한다면 한국에서 FX운동이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성공회의 경험

대한성공회의 경험에서 FX운동과 유사한 맹아를 찾아본다면 초창기 나눔의 집 운동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1986년도 나눔의 집을 시작할 때 선구자들은 신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주교와의 대화에서 그들이 가야할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빈민교회라는 것을 역설하였고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단지 신학생들의 현장학습으로 머물지 않고 신앙공동체로 발전하여 나눔의 집/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 후 나눔의 집/교회론이 신학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였지만 나눔의 집/교회는 교구의 제도 안으로 수용되었다.

대전교구에서의 경험도 미개척 지역에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사회복지 단체를 대한성공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회개척 모델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로 개척된 교회는 교구의 교회제도로 수용되었다.

한국형 FX 교회운동은 지금까지의 교회성장론 중심의 선교론을 탈피하는 운동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선교론은 소형교회는 소형교회대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교회성장론의 틀에 갇혀 버리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아주 과중하게 목회자/성직자 중심의 교회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1. 이제 다양한 형태의 회중의 출현으로 인해 시작되는 교회론은 회중중심의 교회론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회중들의 제자도와 선교에의 부르심에 중심을 둔 교회론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한국기독교가 처해 있는 문화적 상황에 충실한 선교론과 그에 걸맞는 교회론이 한국형 FX운동의 내용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가 맞이하는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복음의 문화적 해석이 이 선교론과 교회론의 관건이 될 것이다.
3. 한국사회의 사회 문화적 변화의 특징은 급격한 세대적 변화인데 이 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제적, 기술적 변화와 이와 맞물린 사회 인구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기독교의 대응에 FX운동이 앞장서게 될 것이다.
4. 한국교회는 교단 중심, 목회자 중심, 권위주의적 기존체제 중심 등 배타주의적 교회론에서 벗어나 예수 따름이라는 제자도의 새로운 교회운동을 다양하게 포괄해 내는 다양성이 나타날 것이다.

